

아마추어천체사관자 황인준

바람이 차고 귀가 시리긴 했지만 날씨는 무척 좋았다. 늦은 오후에 출발했는데도 서울을 빠져 나가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천안 IC를 빠져나가서 천안 시내를 별 막힘없이 잘 관통했는데 아산으로 가는 길에 또 정체를 만났다. 해가 이미 넘어간 뒤에야 아마추어천문인 황인준 씨가 기다리고 있던 호빔천문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호빔천문대 주위는 달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의외로 어두웠다. 여러 대의 천체망원경과 CCD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는 슬라이딩돔을 중심으로 한 쪽에는 잠을 잘 수 있는 방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한 쪽에는 장작불을 지필 수 있는 다목적 거실이 붙어있었다. 황인준 씨 가족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먹었던 삼겹살 맛이 남달랐다. 달이 밝고 토성이 떠오르는 하늘 아래에서 장작불 옆에 모여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다.

“호빔은 우리 가족들 이름 영문 이니셜에서 따와서 지은 겁니다. 제 성에서 H를, 아내의 성에서 O를, 아이들 이름이 다빈, 다영, 다민 인데 이름 끝 자 이니셜을 땀어요. 그래서 HOBYM이 된 거예요. 써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망원경 만들 때마다 붙이는 이름이기도 하지요.”

아마추어천문인 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것 같은 개인 천문대를 짓게 된 연유를 물었다.

“사실 4년 전에 몇몇 별지기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천문인 마을에 비슷한 천문대를 만들었었어요. 그 때의 경험을 살려서 호빔천문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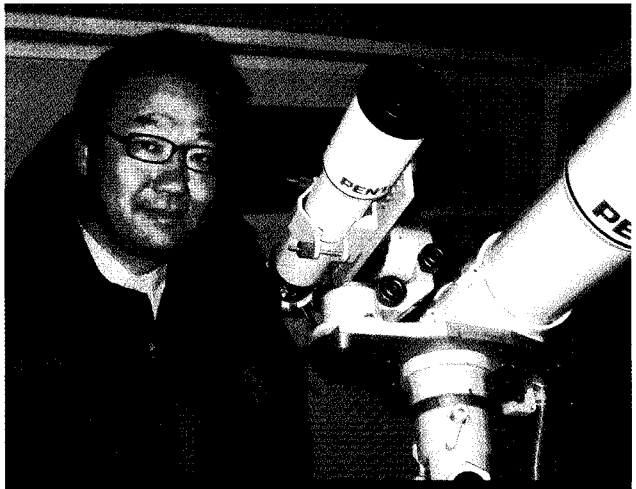
독하면서 지었어요. 경제적인 한계도 있고, 또 사실 마땅히 맡길만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재미도 있고요. 일본에 있는 지인에게 오래 전부터 부탁해 두었던 망원경을 들여오게 되었지요. 14인치 반사 망원경인데 사실은 적도의 마운트가 더 탐났어요. 적도의가 800kg 정도, 자체 무게는 150kg 정도가 됩니다. 더 큰 망원경을 만들어서 올릴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호빔천문대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산일까?

“집에서 15분 거리예요.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가깝기도 하구요. 처음에는 하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곳에서는 달과 행성만 찍고, 강원도에서는 딥스카 이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의외로 이곳 하늘 상태가 좋아요. 강원도 쪽 포기하고 이곳으로 합치다 보니 규모가 커졌어요. 설계도는 따로 없고 지으면서 그 때 그 때 결정하고 변경하고 했습니다. 지으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지요. 짓고 나니 참 좋아요. 가족들과 함께 별도 볼 수 있고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황인준 씨는 나중에 자동화된 관측기기로 초신성탐사를 해 볼 생각이란다. 호빔천문대에는 초점거리가 각기 다른 망원경과 렌즈가 7대 정도 있는데, 이것에는 초신성탐사를 대비해서 초점거리 별 기기를 준비하려는 의미도 있었다고 한다.

“초신성발견 탐사관측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



회 되면 한번 해보려고요. 집에서 천문대까지 거리가 가까우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도 쉽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히는 천체사진가인 황인준 씨는 달과 행성 사진 촬영에 특히 일가견이 있다. 최근에는 딥스카이 사진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냉각 CCD를 사용해서 사진을 얻습니다. 필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디지털 천체사진의 경우에는 후처리 작업 자체가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필름은 정해진 틀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회사가 만들어준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디지털 기기의 경우에는 자유도가 높습니다. 필름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어요.”

아마추어천문인들이 디지털 천체사진 촬영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 처리 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디지털 천체 사진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뭐 사진을 조작을 했다거나 원본을 망가뜨렸거나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미지 처리에 대한 이런 오해를 없애고 확실한 개념을 알리려고 이미지 처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이나 했네요. 사실 이미지 처리가 노이즈를 없애는 작업이잖아요.”

사실 관측천문학자들의 이미지 처리 과정도 결국은 노이즈와의 싸움이다.

“필름 사진을 오래 찍어오던 아마추어천문인 조차도 디지털 사진 촬영을 터부시한 경우도 있었어요. 잘못된 인식이 진리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행성 관측에는 굴절망원경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실제 행성 관측을 제대로 해본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시관측을 하는 아마추어가 스케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구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 보다는 다양한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지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 부분에서 황인준 씨는 천문학자들이 아마추어천문인을 위한 관측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마추어천문의 한계를 더 끌어올리고 싶다는 소망일 것 같다. 그의 유명한 호주 관측 여행 이야기를 들어봤다.

“막역한 별지기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호주로 관측 여행을 갔었습니다. 관측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구름을 피해

서 다니다가 호주 사막 지역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 주유소 옆 허름한 곳에 묶으면서 맑은 밤하늘을 촬영했어요. 도로에서 한 1초 정도 노출을 주고 찍는데도 별이 콕 찬은 하수가 찍혀 나와요. 사진 노출을 걸어놓고는 광해가 전혀 없는 곳으로 나가봤지요. 지평선 바로 위에 뜬 별을 보는 감동이란... 달도 없었는데 옆 사람 얼굴이 보일까 궁금했는데 보이더라고요. 멋진 사진 찍은 성과도 있지만 베테랑 별지기들과의 멋진 여행이 진짜 성과였어요.”

MBA 출신인 황인준 씨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 미스터피자의 사장님이기도 하고 비상근 부사장으로 회사 컨설팅도 하고 있다. 망원경 제작 회사인 아스트로드림텍(ADT)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베테랑 아마추어천문인 한 분과 함께 망원경 제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4-5년 후에는 이 회사를 전세계 아마추어천문인들이 알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볼 욕심이 있습니다. 종종 아마추어 단체에서 ‘안시 관측에서 ADT 망원경이 비싼 미국제 망원경을 능가하다’는 평가를 할 때는 정말 뿌듯합니다.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나도 돈 별면 ADT 망원경 사야지’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고 합니다. 최고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 16인치 망원경을 제작 중에 있어요. 적도의 개선을 위해서 베어링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저렴한 적도의를 생산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잔잔하게 키워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ADT 사업이 주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방안에서 놀던 아이들이 달을 보고 싶다며 여전히 바람이 차가운 밖으로 뛰어 나왔다. 황인준 씨는 땀한 상이 내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새로 들여온 14인치 망원경을 통해서 본 달빛은 찬란했다. 한 아이가 디카로 달을 찍으려고 이리 저리 공리를 하고 있었다. 인터뷰 길에 데리고 갔던 꼬마 아이는 직접 달을 찾아보겠다고 조정 단추를 이리 저리 눌러 보고 있었다. 카메라 상자를 덮고서야 볼 수 있었던 토성을 보면서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하고 있었다. 또 다른 것도 보여 달라며 조르기도 했다. 어린 시절 막 아마추어천문인이 되던 그 때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감상에 젖어들었다. 호빔천문대가 이미 별을 사랑하는 황인준 씨 주위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린 것이 분명해 보였다.